

장성, 일상 회복·경제 회생 ‘총력’

202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신규시책 36건 등 285개 안전 논의

장성군이 최근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새해 장성군의 발전을 이끌어갈 군정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에 열린 1차 보고회 내용을 보완·개선했던 총 285개 안전 건에 대해 그룹별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은 공약 23건, 역점시책 55건, 신규시책 36건, 일반현안 171건으로 구성돼 있다.

장성군은 먼저 군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안전 장성 시스템’ 강화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긴급 지원(1인 20만 원)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489억 원) ▲오동소하천 정비사업(350억 원) ▲1000원 버스 운행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첨단3지구 개발을 비롯해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 ▲청운지하차도 개설 ▲장성 하이패스 IC 진출입로 신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에 박차를 가해 도농복합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간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도 적극 대응한다. 지난해 완공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황룡강 지방정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노란예술센터 조성 등을

추진해 황룡강 르네상스 전성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장성호 수변백리길과 ▲죽령산 하늘숲길 조성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백양사 보수·정비사업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 등을 통해

기존 관광자원의 가치도 새롭게 한다.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전조기지가 될 삼계면 국립야생조류생물지킴이센터 설립을 필두로 ▲황금 치유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광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기후 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부자농촌 건설에 속도를 낸다.

더불어 ▲노인회관, 가족회관 건립 ▲효도권(이·미용권, 목욕권 통합) ▲맞춤형 보건 서비스 등 촘촘한 복지로 지역사

회에 희망과 행복을 더하는 한편,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 옐로우시티 장성 발전의 원동력인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간다.

보고회를 주재한 유두석 장성군수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일상 회복과 경제 회생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면서 “오로지 군민과 장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집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성군이 최근 청사 회의실에서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장성군 제공

장흥,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한다

장흥군이 올 1월부터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이어진 조치다.

군은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5만원과 참전명예수당 9만원, 참전유족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 비해 각각 2만원씩 인상된 금액이다.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은 올해 3월 설계가 끝나는 대로 4월 착공, 12월 준공 및 입주할 예정이다.

규모는 974㎡의 공간에 ▲보훈단체 사무실 ▲대회의실 ▲주민 휴게실 등으로 구성돼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군민의 자



장흥군 보훈회관 조감도 /장흥군 제공

유로운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 관내 목욕장 자발적 휴업 동참

오는 16일까지...업소당 손실보상금 100만원 지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나주시 관내 목욕장이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다.

나주시는 지역 목욕장 10개소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휴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들어 나주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0명(10일 기준) 이 중 26명이 목욕장에서 나왔다.

보건소는 최근 목욕장 업주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갖고 방지 대책을 논의, 자발적 휴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냈다.

자율적 휴업에 동참한 업소 1개소 당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현승 보건소장은 “쉽지 않은 휴업 결

정에 동참해준 업주 관계자들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총력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확진자 수가 나올 때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청사 건물 출입 관리도 강화한다.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출·퇴근 시간 대를 제외, 청사 별관 주출입구 및 건설과 통로 출입문이 통제된다.

청사 방문 민원인은 출입 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 접종자의 경우 가급적 부서 방문이 아닌 1층 로비 공간에서 업무를 보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미래 핵심 전략사업 육성 빛그린산단 활성화 온 힘”

2022 새해설계

이상의 함평군수

“올해 군정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체감하는 전략사업 혁신성장입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함평 혁신성장의 원년이 될 임인년 새해는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수많은 성과를 창출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미래 지역성장의 발판이 될 핵심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이를 위해 함평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월야면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빛그린산단은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이 들어서 있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또한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을 확정하는 등 이 일대가 자동차 생산과 자동차 관련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2023년 준공을 앞둔 ‘빛그린산단 2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산단 내 기업 유치와 함께 배후지역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단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도 나서고 있다.

군로자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함평은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 사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함평군은 광주시, 전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빛그린산단 2단계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촌진흥청 산하 스마트 축산 연구 국가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 사업까지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는 함평군이 대한민국 축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암축산농공단지와 국립축산과학원을 연계해 축산 관련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를 아우르는 축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돌머리권역, 엑스포공원권역, 생태공원권역 등 권역별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한다.

이 군수는 “함평군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함평읍 권역 가락리 일원 2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초 생활 인프라 등 지역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스마트시티 조성, 북산센터 건립 등 총 10개 세부사업을 펼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사업이 150억 원 규모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함평특화자원 내비마을 만들기 사업, 중앙길 일원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되면 함평읍 전체에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윤예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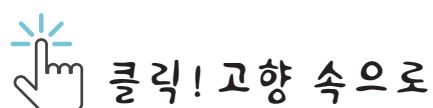
장흥 재난지원금 10만원 17일부터 지급

장흥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이고,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현장에서 장흥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사람도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22년 1월 6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흥군은 원활한 일상회복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언론보도, 현수막, 마을방송,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담양 대전면 이희덕장학회, 장학금 전달

담양군 대전면 이희덕장학회는 최근 장학회 임원과 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 및 학부모 등 약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 4명에게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전달됐다.

이희덕 장학회는 고인이 된 이희덕 전 공무원이 2015년 8,000만원을 기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매년 초·중·고 학생 2명과 중학생 2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한 학생은 “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열심히 공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김창호 재경 안마도향우회장, 성금 기탁

재경 안마도향우회 김창호 회장이 최근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영광군에 불우이웃돕기성금 1,000만 원을 기탁, 따뜻한 정을 전했다.

김창호 회장은 나월면 안마도 출신으로 안마도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매년 고향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비투엘물류

(주)를 설립해 제40회 국가생산성대회 서비스우수기업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중견 물류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 회장은 “향우회원들과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향우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물소리삼나라, 김장김치 200박스 기부

나주시는 농업회사법인 ‘물소리삼나라’ (대표이사 문제승)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70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200박스를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후원 김치는 사내 임직원들이 천연 미네랄 물을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로 관내 홀몸·장애인과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3년 간 연말연시 나눔을 이어온

문병태 대표이사는 “정성으로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밥 반찬으로 제공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과의 나눔과 지역사회 상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나주=조충권 기자